

월급전액 복지단체 보시

광주여대 장우인교수

생활비 야간특강·원고료로

각박한 현대사회에 무소유·무주상보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바이가 있어 신선한 감동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광주여대 장우인교수(여·37·사회체육과). 그녀는 250만원 상당의 매달 교수월급 전액을 인근 사회복지단체에 보시하고 있다. 그녀의 생활비는 저역층은 시간 교내 사회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과외 강의로 받는 많지 않은 강사료와 원고료 등이 전부. 뼈아픈 생활비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

장교수가 이처럼 무소유의 삶을 살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부등산 광복사에서 어린시절을 보내면서 스님들의 무소유 생활을 체험하며 자랐기 때문. 그녀는 주지 김여화(金如摩)스님 문하에서 나름의 불교공부와 수행을 쌓아 일찍부터 참상의 의미를 사색해 왔던 것이다.

그녀에게 친어머니와도 같은 여화스님은 51세때 출가하여 광복사를 창건하였으며 25년간을 수행과 참선으로 정진한 비구니 스님. 우리나라에 <아함경>을 널리 알린 故 고인진교수(동국대)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장교수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고불총림 백양사에 기거하면서 방장 서용스님을 시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바쁜 강의 일정과 논문 작성 때문에 광주시에 내려와 있다.

지난달 <현대인을 위한 요가>(서경 刊)를 펴낸 바 있는 장교수는 자신의 전공(현대무용)을 살려 불교수행과 요가를 접목한 스포츠과학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꿈이다.

"어릴 때부터 스님들의 수행을 보면서 요가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장교수는 "개인 수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나쁜 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요

가의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에겐 배우고 가르치는 일 외에는 별다른 욕심이 없다.

(김재경 기자)

대구구도회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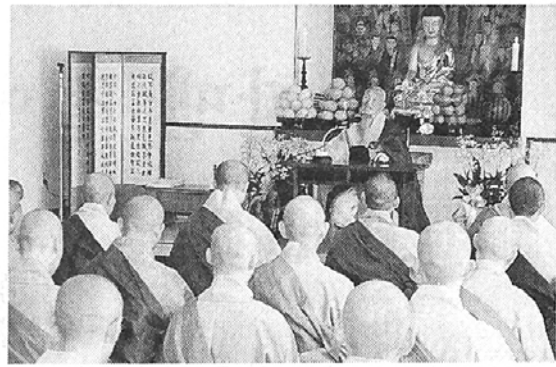
140여평 10월 완공

정법회거사협회와 더불어 대구 지역 재가신행활동의 양대축기를 형성해온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회장 권오주)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구도회관은 2층 법당을 비롯 1층에는 사무실과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는 불서도서실 등이 들어선다. 1층은 불교미술 전시공간 및 차공, 10월말 완공할 예정이다.



◇장우인교수



◇요정 대원각 자리에 들어선 김상사는 18일 임시법당에서 부처님 점안법회를 가졌다.

김상사 봉불점안

18일, 창건기원 백일기도

조계총림 송광사 서울본원 김상사(주지 청학)는 18일 부처님 점안 및 창건기원 백일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삼귀의, 헌화, 반야심경 봉독, 불교방송합창단의 축하 순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송광사 율주 보성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원학스님, 정등사 주지 장륜스님, 조선일보 공종원

논설위원, 교육개혁 위원장 김중서교수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상사 주지 청학스님은 인사말에서 "창건주인 김상사보살이 대원각을 기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업소축과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개원이 지연됐다"며 오는 12월 원만히 개원할 수 있도록 1백일 기도를 봉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계후 종립대 입학만

기본교육 이수인정"

조계종 교육법안 새로 마련

법주사 승가대학과 수덕 승가대학이 가인가됐다. 또 동국대와 승가대학의 경우 사(니)계를 수지하고 입학한 자에 한해 졸업시 종단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교육법안이 새로이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은 17일 제28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법주사와 수덕사의 승가대학을 가인가하고 2년내에 제반요건을 갖춘 경우 정식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종립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또는 선학과를 졸업한 자는 승가대학을 수료한 것으로 한다'는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졸업해야만 종단 기본교육기관 이수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뉴스 & 뉴스

조계종 자양복지관 수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주스님)은 16일 공청구청으로 부터 자양사회복지관 수탁운영 법인으로 선정됐다. 7월 1일부터 공식운영예정인 자양사회복지관은 광진구 자양3동 553-6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에 총건평 약 2백53평이다.

'대구 생명나눔전학' 개설

생명나눔실천회 대구지부(회장 심업, 서대구전학)는 생명나눔 홍보강화를 위한 스티커 1만여장을 배포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구지부는 생명전의 전화(053-6560-911)를 개설하여 장기 기증과 관련된 상담도 받고 있다.

생명나눔실천회 대구지부는 대구 분리동 불교병원, 경북대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홍보를 강화하여 3백여명 불자의 장기와 사후시신을 기증받고 있다.

종교인 순례단 복성금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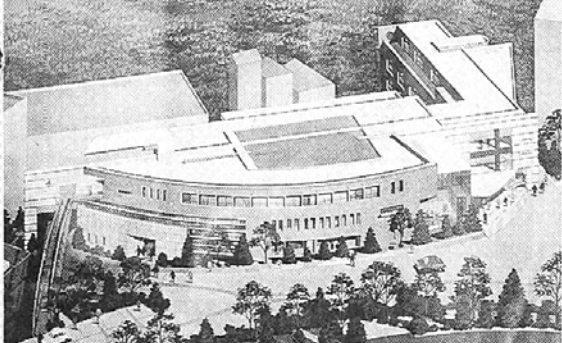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는 4일부터 10일까지 북녘동포돕기 전국순례를 통해 모은 성금 4백51만6천7백80원을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에 기탁했다.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 상임집행위원장 효림스님 등으로 구성된 종교인순례단은 특히 전국순례를 마감하면서 대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지원에 직접 나설 북경의 중국불교협회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 △간간차원의 모금활동을 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연변동포에 '자비의웃' 전달

부산불교신도회 중국불교방문단(단장 임채수)은 14일 연길의 조선족 사찰 교각사를 통해 연변동포를 위한 자비의웃 전달식을 가졌다.

방문단은 3월부터 연변동포를 돕기 위해 접수받은 1만여벌의 웃을 전달한데 이어 15일 북경의 중국불교협회를 방문 한·중 불교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대는 건평 2천1백50평 규모의 정보매체센터를 건립한다.

동국대 정보매체센터 건립

빠르면 내년말 완공...식당전용 건물도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에 정보화·국제화시대를 이끌 종합정보매체센터가 건립된다.

지난해부터 정보매체센터 건립을 추진해 온 동국대학교는 5월 말 열린 이사회에서 현 영경원과 공대 농구장 자리에 건평 2천1백50평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정보매체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의했다.

정보매체센터에는 각종 증명서를 한 곳에서 뚝 수 있는 종합민원실과 역경원 및 정보산업과학대학이 들어선다. 정보산업과학대학 시설로는 강의실 10개, 실습실 10개, 교수연구실 15개, 세미나실, 영상강의실 등이 마련되며, 종합불교도서관도 들어설 계

획이다.

또한 과학관 뒷편 현 온실자리에는 건평 1천1백5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식당전용건물이 건립된다. 1·2층은 학생식당, 3층은 교직원 식당으로 사용될 이 건물은 일시에 9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어 그동안의 식당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는 이달말경 설계가 완료되면 9월에 공사를 시작해 빠르면 98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두 건물이 완공되는 99년부터는 학생 및 동문들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국방장관 사과하라"

법당주변에 인분을 대량 뿌리고 법회에 참여하려는 하후생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육군특수전학교 불교탄압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18일 교계 17개 신행단체와 '육군특수전학교 불교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원혜, 조계종 포교부장)'를 결성하고 국방부장관·대통령의 사과와 특수전학교장 박희만총장에게 이진규소령의 장역조치와 군목사 장시용대위의 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불교탄압대책위는 △인분 살포사건 책임자 색출 △군부내 종교권향사태 시정 및 대안 마련 △24일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며 조치가 미흡할 경우 27일 국방부안 규탄법회와 대대적인 불자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24일까지 각 단체 단위의 성명서 발표 및 조계종 포교사단 차원의 국방부장관 면담을 요청키로 했다.

사미·사미니 습의 통일교재 추진

조계종 8월 행사교육원 적용후 최종안 확정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은 18일 파계사에서 습의 및 자법 교안 편집 및 제13기 행사교육원 개원을 위한 습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습의사

한편 국방부 박성대 군종실장과 육군본부 박옥병군종감은 18일 조계종 포교원을 방문하고 원혜 불교탄압대책위원장에게 "특수전학교 학교장 박희만 총장을 경고조치하고 하교대장 이진규소령과 군목사 장시용대위를 직위 해제조치 했다"며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시인한다"는 공식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원혜스님은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교육사령부의 인사조치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수전학교 상급부대인 교육사령부 부사령관 이희완 소장은 13일 교계기자 간담회를 갖고 "예하 전 군교육기관을 철저히 조사해 이란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장은 또 △관련 책임자 문책 △교육사예하학교 종교권향조사 △불자들의 부대출입 안전 및 종교활동보장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교육사령부 감찰부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 자체감사 조사결과 "반성문은 사실이었으며 인성교육실시가 교회에서 목사에 의해 실시돼 전도한 것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초과일을 앞두고 법당 옆에 뿌려진 것은 인분이 아니라 오물찌꺼기였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교계기자간담회에는 이희완 교육사령부 부사령관, 이치영 군종감, 육군본부 보도부장, 교육사령부 인사처장 군종실장, 박동진 김관한법사, 능인선원 12기동장회 이덕천회장, 박희만 특수전학교교장을 비롯 학교 전 간부들이 참석했다.

"똥 동물똥 뿌렸다고 자비의웃 교에서 뭘 그러느냐." 국방부 군종실장 박성대신부가 18일 조계종 포교원을 방문하여 육군특수전학교의 인분사건을 이같이 비하했다.

이에 대해 효종 연수실장이 "그러면 천주교성당에 동물똥을 뿌리면 괜찮겠느냐"고 되물자 그는 아무말도 못했다.

이제까지 군부내 내 해발사건은 수없이 많다. 근래의 일만 하더라도 모군함에서 불상을 바다에 빠뜨린 사건, 불상을 산에 내다버린 93년 육군 17사단 사건, 95년 국방부 대통령 예배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

들은 자비의웃 교라는 미명하에 이제까지 수많은 것을 참고 양보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건도 당초 불교계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모색했다.

그러나 특수전학교 관계자는 거듭되지도 않고 오려 민간인들

자비의 강한 체

적을 들기로 했

다. 또 대통령

국방부에게 사건때 더이상 편향정

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양호 당

시 국방장관의 약속을 비롯기나하

는듯 터진 이번 사건을 국민화합

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정되었

다. 이번에는 군부내 불교탄압

을 종식시키는 철저한 대응을 기

대한다.

자비의 강한 체

적을 들기로 했

다. 또 대통령

국방부에게 사건때 더이상 편향정

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양호 당

시 국방장관의 약속을 비롯기나하

는듯 터진 이번 사건을 국민화합

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정되었

다. 이번에는 군부내 불교탄압

을 종식시키는 철저한 대응을 기

대한다.

자비의 강한 체

적을 들기로 했

다. 또 대통령

국방부에게 사건때 더이상 편향정

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양호 당

시 국방장관의 약속을 비롯기나하

는듯 터진 이번 사건을 국민화합

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정되었

다. 이번에는 군부내 불교탄압

을 종식시키는 철저한 대응을 기

대한다.

자비의 강한 체

적을 들기로 했

다. 또 대통령

국방부에게 사건때 더이상 편향정

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양호 당

시 국방장관의 약속을 비롯기나하

는듯 터진 이번 사건을 국민화합

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정되었

다. 이번에는 군부내 불교탄압

을 종식시키는 철저한 대응을 기

대한다.

자비의 강한 체

적을 들기로 했

다. 또 대통령

국방부에게 사건때 더이상 편향정

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양호 당

시 국방장관의 약속을 비롯기나하

는듯 터진 이번 사건을 국민화합

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정되었

다. 이번에는 군부내 불교탄압

을 종식시키는 철저한 대응을 기

대한다.

자비의 강한 체

적을 들기로 했

다. 또 대통령

국방부에게 사건때 더이상 편향정

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양호 당

시 국방장관의 약속을 비롯기나하

는듯 터진 이번 사건을 국민화합

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정되었

다. 이번에는 군부내 불교탄압

을 종식시키는 철저한 대응을 기

대한다.

자비의 강한 체

적을 들기로 했

다. 또 대통령

국방부에게 사건때 더이상 편향정

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양호 당

시 국방장관의 약속을 비롯기나하

는듯 터진 이번 사건을 국민화합

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정되었

다. 이번에는 군부내 불교탄압

을 종식시키는 철저한 대응을 기

대한다.

자비의 강한 체

적을 들기로 했

다. 또 대통령

국방부에게 사건때 더이상 편향정

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양호 당

시 국방장관의 약속을 비롯기나하

는듯 터진 이번 사건을 국민화합

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정되었

다. 이번에는 군부내 불교탄압

을 종식시키는 철저한 대응을 기

대한다.

자비의 강한 체

적을 들기로 했

다. 또 대통령

국방부에게 사건때 더이상 편향정

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양호 당

시 국방장관의 약속을 비롯기나하

는듯 터진 이번 사건을 국민화합

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정되었

다. 이번에는 군부내 불교탄압

을 종식시키는 철저한 대응을 기

대한다.

자비의 강한 체

적을 들기로 했

다. 또 대통령

국방부에게 사건때 더이상 편향정

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양호 당

시 국방장관의 약속을 비롯기나하

는듯 터진 이번 사건을 국민화합

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정되었

다. 이번에는 군부내 불교탄압

을 종식시키는 철저한 대응을 기

대한다.

자비의 강한 체

적을 들기로 했

다. 또 대통령

국방부에게 사건때 더이상 편향정

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양호 당

시 국방장관의 약속을 비롯기나하

는듯 터진 이번 사건을 국민화합

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정되었

다. 이번에는 군부내 불교탄압

을 종식시키는 철저한 대응을 기

대한다.

자비의 강한 체

적을 들기로 했

다. 또 대통령

국방부에게 사건때 더이상 편향정

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양호 당

시 국방장관의 약속을 비롯기나하

는듯 터진 이번 사건을 국민화합

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정되었

다. 이번에는 군부내 불교탄압

을 종식시키는 철저한 대응을 기

대한다.

자비의 강한 체

적을 들기로 했

다. 또 대통령

국방부에게 사건때 더이상 편향정

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양호 당

시 국방장관의 약속을 비롯기나하

는듯 터진 이번 사건을 국민화합

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정되었

다. 이번에는 군부내 불교탄압

을 종식시키는 철저한 대응을 기

대한다.

자비의 강한 체

적을 들기로 했

다. 또 대통령

국방부에게 사건때 더이상 편향정

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양호 당

시 국방장관의 약속을 비롯기나하

는듯 터진 이번 사건을 국민화합

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정되었

다. 이번에는 군부내 불교탄압

을 종식시키는 철저한 대응을 기

대한다.

자비의 강한 체